



2005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 4월 19일(화), 아미가호텔 메그레즈홀에서 2005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근의 주택가격 동향과 정부에서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초고층 재건축 불허, 안전진단에 대한 직권 조사권 발동 및 재건축 고분양 건설업체 세무조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재건축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재건축주택 가격안정 적극 동참

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으로 재건축 주택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주택업체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최근 정부의 대책 및 노력에 적극 동참키로 의견을 모으고, 조합과 시공사가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재건축을 부추기는 행위를 지향하기로 하였으며, 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협회 주관으로 오는 6월 8일(수) 개최 예정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대한 준비사항을 보고 받고 민간택지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학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1990년 6월 창간하여 월간지로 발행하고 있는 '주택회보'를 다양한 주택관련 정보수요를 제공하는 주택업계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일반 공모를 통해 당선작으로 선정된 '주택과 사람들'로 제호를

변경하고 기획 및 취재 기능을 강화하며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과 인간적인 발자취를 들여보는 '이 사람(CEO)' 칼럼 등을 신설하여 5월호부터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방주 회장은 "CEO 칼럼과 기업이미지 광고에 임원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택지개발여건의 변화와 민간택지개발의 과제' 특강

이사회에 이어 장성수 박사(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택지개발여건의 변화와 민간택지개발의 과제' 특강이 있었다.

이날 특강에서 장 박사는 "IMF 이후 주택시장의 규제가 철폐되어 주택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택지의 부족으로 주택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시행으로 '선계획-후개발'이 제도화되고 토지적성평가,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반시설연동제 등의 토지이용규제 강화 및 재건축요건 강화 등으로 주택종합계획기간(2003년~2012년)동안에 필요한 총 2억6천만평의 택지 중 공공부문에서 50%를 충당하고 50%는 민간에서 나대지,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민간택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의 정비나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2008년 이후 민간택지개발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민간택지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개발일변도에서 계획과 개발의 융합을 지향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사용방식을 원토지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환매방식을 활성화하고 개발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며 일정한 시공능력이 있는 사업시행자로 자격을 합리적으로 제고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현행의 '택지공급방식을 정비하여 실수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하였다.

협회장,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식 참석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식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지난 4월 29일(금),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방주 회장을 비롯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정성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건설관련 단체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국내 주요 건설업체 대표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협약체결의 당사자는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건설교통부장관과 건설부문을 대표하는 건설관련 단체의 장 및 건설관련 업체로서 이날 협약에서 건설인들은 과거의 잘못된 부패관행을 떨쳐 버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산업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하였다.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은 건설인들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그 주요내용은

- ▶ 법과 원칙의 준수
- ▶ 부패한 수단으로 이익을 도모하지 않을 것
- ▶ 건전한 기업윤리 정착에 앞장 설 것
- ▶ 건설분야 공정거래 질서 준수
- ▶ 안전, 환경관련 국제기준과 관계법령 준수로 성실시공 추구
- ▶ 사회공헌사업 확대
- ▶ 부패와 부조리 감시 및 극복 등이다.

전체 건설업계의 반부패물질 확산을 위하여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가동

이날 협약식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패업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공공발주공사에 참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청렴업체에 대하여는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

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건설업계가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체결한 투명사회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교부 감사관과 건설관련 단체 상임부단체장으로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 실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 협의회'에서는 모든 건설관련 사업자에게 협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등 건설관련업계의 반부패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협약의 이행, 평가·점검·확산 등 협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는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에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진건설산업기반 구축'과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협회장, 국제개발투자엑스포 개막식 참석



국제개발투자엑스포 개막식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지난 4월 7일(목),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COEX)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개발투자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여 테이프 컷팅 후, 관광휴양단지과 테마 센터 등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지자체, 기관 및 민간업체 등의 홍보관을 둘러보았다.

이날 행사에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김한길 수도권발전대책특위 위원장, 정세균 원내대표 등과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 등 정·관계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는 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레저단지, 스키장, 온천, 기업도시, 국가산업단지 등 총 50여개의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관광시설, 리조트, 아파트 등 다양한 민간 개발프로젝트 정보들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신문사와 서울메세가 주최하고 우리협회를 비롯하여 건설교통부, 한국도지신탁,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등이 후원하였다. ☎